

# 미술작품 전시회 카타로그에 관한 연구

## : 예술사적 특수자료로서의 가치와 도서관에서의 관리

노 문 자\*

### 〈목 차〉

- |                                  |                   |
|----------------------------------|-------------------|
| I. 서론                            | III. 전시회 카타로그의 관리 |
| II. 예술사적 특수자료로서의 전시회 카타로그        | 1. 전시회 카타로그의 수서   |
| 1. 전시회 카타로그의 개념과 형태              | 2. 전시회 카타로그의 정리   |
| 2. 전시회 카타로그의 발전과정                | 3. 전시회 카타로그의 이용   |
| 3. 예술분야 문헌에서 전시회 카타로그의<br>위치와 특성 | IV. 결론 및 제언       |
| 4. 전시회 카타로그의 기능                  | 참고문헌              |
| 5. 전시회 카타로그의 구성 내용               | Abstract          |

## I. 서론

세계는 문화의 시대로 다가가고 있다. 문화가 경제이고 문화가 정치이며 문화가 외교가 되어가는 시대이다. 각 나라 경제 GNP보다 문화복지의 GNP를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시대이다. 문화처럼 자본주의의 핵심인 것도 없고 또 이데올로기의 표현인 것도 없다. 이러한 경향은 후기산업사회가 문화산업으로 좁혀져 가고 있음을 뜻한다.

후기 산업사회는 정보테크놀로지 혁명에 의해 특징지워지는데, 이는 우리가 정보화 사회라는 거대한 우주 공간 속에서 원하는 정보를 거의 다 얻게됨을 말한다.

\* 숭의여자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

인간의 물질적 정신적 필요가 조화를 이루어 우리의 생활이 윤택하게 되면 자연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문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면서 문화 상품이 쏟아지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생활속에서 예술을 접하게 된다. 예술을 감상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교양을 쌓게되며, 국민의 정신순화를 통한 사회정화를 이루게 된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은 문화계 관련정보를 과거의 종이형태로든 또는 최첨단 정보매체를 통해서든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즘은 소위 인터넷이라는 세계적 정보데이터뱅크를 누구나 접할 수 있으며, 미술분야, 예를 들면 특정 박물관의 예술품도 이를 통해 감상할 수 있게 됐다. 도서관이 Cyber Library, Digital Library, Electronic Library로 변모하고 있는 것처럼 미술관 박물관도 Micro Gallery,<sup>1)</sup> Cyber Gallery, Digital Exhibit, Electronic Exhibition로 변모하고 있다. 이는 예술이 과거 특수계급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들의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공유물이 되어감을 뜻한다. 이러한 현상은 예술의 대중화를 촉진시키면서 예술의 발전을 유도하게 된다.

음악이 듣는 공부인 것처럼 미술은 보는 공부이다. 미술작품은 전시회를 통해서 발표된다. 러시아 문호 투르게네프는 “한점의 그림 속에는 책 수십 장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7,000명 이상의 미술학사가 배출되고,<sup>2)</sup> 여기에 기존의 미술인구를 합하면 매년 수천 회 이상의 미술전시회가 열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의 작품이 창작되면 예술품 자체는 물론 제일 중요한 정보가 되지만 이외에 도록, 전시회 카타로그, 슬라이드, 팸플렛, 포스터, 사진, 화집, CD-ROM, 비디오 등 각종 자료가 생산된다. 이 자료들은 과거처럼 예술품의 부산물이 아니라 작품의 동반자로 인식되어 실물의 대체정보원으로 활용된다.

미술 정보는 미술 생산집단과 미술 소비집단에 의해서 이용되어 진다. 미술 생산집단은 창작 지향적인 특성을 갖는 집단으로써 여기에는 순수 미술 창작뿐만 아니라 모든 미술산업의 제작자들도 포함된다. 창작 집단이 미술 창작자 개인과 개인의 모임 이라면 제작집단은 미술과 관련된 상업단체를 의미한다. 창작집단은 전문 미술인, 예비 미술인, 미술가 단체를, 제작집단은 영화제작사, 음반제작사, 도서출판사, 미술프로그램 및 산업디자인 제작집단을 말한다. 미술 소비집단은 미술문화를 직접 소비하는

1) 유순남, “미술관람정보”, 미술관소식, 국립현대미술관, 제 31호 3/4, 1998, p.44

2) 유순남, 미술정보의 전자서비스 시스템 설계구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정보처리학과 석사논문, 1966, p.1

전문인과 일반인을 뜻하며, 순수 소비 대중 뿐만 아니라 상품생산에 참여하는 디자이너와 같은 전문인은 물론 매개과정에 관련된 자들도 여기에 포함된다.<sup>3)</sup> 미술 정보는 물론 원작품 자체를 접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지만 원작품을 보는 것은 시공상의 문제가 있어 원작품의 대체물이 필요하다. 이 대체물 중에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미술 생산집단과 미술 소비집단 모두가 선호하는 자료는 전시회 카타로그이다. 황동열의 “미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데이터요소에 관한 연구”<sup>4)</sup>에서는 기초 정보 기술집단은 정보를 거의 도록이나 전시회 카타로그에 의존하고, 두 개 이상의 작품을 비교하는 경우에도 가장 편리한 매체로 도록이나 전시회 카타로그를 선호했다. 또한 업무상 작품을 보아야 할 경우에도 수장고에 가서 작품을 직접 보기보다는 상세정보분석집단과 기초정보집단 모두가 주변의 도록이나 카타로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정의 “미술자료의 이용에 관한 연구”<sup>5)</sup>에서도 전시회 카타로그가 역시 예술전문인과 일반인, 즉 미술 생산집단과 미술 소비집단 모두가 가장 선호하는 자료로 나타났다. 또한 미술 전문도서관의 장서에서 이 자료의 비중은 단일 자료의 유형으로는 제일 높다. 미술작품 전시회 카타로그는 전문가와 비전문가에게 작품의 최신 동향, 작품의 평가, 작품의 사진, 예술가 자신의 글과 정보를 제공하는 이외에도 특히 미술사학자에게는 유일한 도큐멘테이션으로서 소중한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미술 전문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미술대학의 단과대학 도서관에서나 우리 문헌정보학계에서 전시회 카타로그는 문헌으로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심지어는 무시되거나 아예 문제야로 분류되기까지에 이르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전시회 카타로그의 개념과 형태, 발달과정, 문헌으로서의 위치와 특성, 기능, 구성내용을 문헌을 중심으로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실무적인 관리의 차원에서는 수서, 정리, 이용으로 구분되어 다루어졌고, 이 자료가 회색문헌이라는 특성상 자료의 입수가 까다로워 수서에 비중이 주어졌다. 수서에서도 비도서자료의 취약적인 수서도구와 자료의 입수에 시간,공간의 제약을 받는 자료의 특성을 감안하

3) 미술문화정보센터 설립연구, 1995 미술의 해 조직위원회, 한국정보관리학회, 1995, p. 63

4) 황동열, 미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데이터요소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도서관학과 정보학과 박사논문, 1992, p. 90

5) 이현정, 미술자료의 이용에 관한 연구: 이용자 주제배경과 관련하여,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논문, 1996, p. 29

여 자료의 입수가 깊이있게 다루어졌다. 정리에서는 전시회 카타로그의 기본표목의 선정에 관한 문제로 인하여 분류보다 목록이 심도있게 취급되었다.

## II. 예술사적 특수자료로서의 전시회 카타로그

### 1. 전시회 카타로그의 개념과 형태

전시회 카타로그의 개념이 출판계와 예술분야에서 정착된 시기는 약 30년이 겨우 넘는 정도다. 도서관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1968년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sup>6)</sup>에 예술도서관과 그 분야의 전문문헌과 관련하여 언급되었다.

우리나라 미술계에서 전시회 카타로그는 전시회 도록으로 우리국어사전<sup>7)</sup>에는 “사람이나 물건의 이름을 통틀어 적은 목록” 이라고 간단하게 정의되어 있다. 외국의 이 분야 백과사전인 *Encyclopedia of World Art*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자료의 다양한 형태로 인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시회카타로그 용어에 대한 적절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sup>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회 카타로그의 정의를 우리의 도서관목록, 장서목록 즉 서지의 개념에서 비교하여 추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도서관의 목록이 도서관에 소장되어있는 자료를 특정한 관점과 규칙에 의거하여 기술한 자료의 리스트라면 전시회 카타로그는 전시회에 출품된 예술작품에 대한 단순한 리스트에서 시작하여 넓게는 작품에 대한 전문가의 해설, 평, 작가의 의견등이 어느정도 자유로운 형식으로 기술된 전시회 안내서이다.<sup>9)</sup>

전시회 카타로그가 도서관에서 까다로운 자료로 취급되는 것은 그 형태에 기인한

6)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ew York.1968. Vol.1. p. 601

7) 이희승,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1981. p. 893

8) Starr, Daniel, "Some comments on the cataloging of exhibition catalogues, or who was the author of that exhibition". *Art Documentation*. Vol.15(1996). Nr.1. p. 11

9) Kullik, Andrea, *Ausstellungskatalog als kunsthistorische Publikationsformen(1945-1990)*.

Hausarbeit zur Prufung fur den hoheren Bibliotheksdienst. Fachhochschule fur Bibliotheks- und Dokumentationswesen in Kohn.1993. p. 3

다. 전시회 카타로그는 단행본 형태인 핸드북 성격의 5권짜리가 있는가 하면 도서관의 자료라고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모양,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다양성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그 한계가 없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근래 도서관의 개념 자체가 전자출판으로 인해 모호해지기는 하지만 전시회 카타로그에 있어서는 그 양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전시회 카타로그는 단행본의 형태부터 시작하여 팸플렛, 낱장의 슬라이드 패키지, phonodisc, 신문형태로도 만들어지고, 이 외에도 카타로그의 모서리를 자른 모양의 카타로그, 알류니늄으로 덮힌 표지, 책등을 핀으로 고정시키지 않고 리본으로 묶은 형태, 커다란 종이 한 장을 이상한 모양으로 접은 형태, 전시회 포스터용 카타로그, 전시회 카타로그용 포스터,<sup>10)</sup> 전시회 포스터 뒷면에 인쇄된 카타로그, 특이한 형태로 접어서 팸플렛으로 사용되는 카타로그, 낱장으로 된 가제식 카타로그가 box나 bag portfolio에 들어있는 형태, 소포용 쿠션봉투나 데님지주머니에 들어있는 카타로그등등이 있으며, The Hayward Gallery의 Kinodisc 전시회 카타로그는 심지어 75장을 접은 종이 형태로 종이카바에 싸서 polythylene 주머니에 넣어져 있는데 읽으려면 낱장으로 한 장씩 떼어야 하는 형태까지도 있다.<sup>11)</sup> 형태가 이렇게 다양한 만큼 크기 또한 예외도 아니어서 정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외국에서는 전시회 카타로그의 범위를 전시회에 관련하여 출판, 생산된 거의 모든 자료를 망라하여 넓게 잡고 있다. 우리나라 미술계에서는 전시회 카타로그가 단행본 형태로 출판된 것은 통념상 전시회 도록으로 칭하고, 단행본 형태 이외에 전시회와 관련하여 간행, 생산된 자료는 전시회 카타로그에 포함시키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전시회 팸플렛이 있다. 도록이나 팸플렛 형태에 포함되지 않은 낱장짜리 leaflet이나 카드 등은 파일자료로 취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집도 도록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학자도 있기는 하나 본 논문에서는 전시회 카타로그의 범위를 화집을 제외한 전시회와 관련하여 생겨나는 모든 자료로써 광의의 개념으로 취급하였다.

10) Fitzpatrick Olivia, "Art exhibition catalogues: a source for art documentation". An Leabharlann. The Irish Library. 1996. Vol.12.Nr.4. p. 120

11) Taylor, J.G., Art exhibition catalog: an exploratory study of their accessibility to patron in selected academic, museums and art school libraries.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1993. p. 34

## 2. 전시회 카타로그의 발전과정

예술품 전시회 카타로그의 역사는 전시회의 탄생을 전제로 한다. 예술품 전시회의 뿌리는 예술품을 고대 시장에서 판매를 위해서 혹은 장식품으로 대중에게 알리는데서 출발했다. 그리스인이나 로마인들은 예술품을 활발히 거래했다. 그리스인들은 예술품 거래에서 예술품의 실용성에 가치를 둔 반면 로마인들은 그들이 전쟁을 통해 전리품을 수집하는 수집광적인 차원에서 시작하여 정복자, 지배자 숭상으로 발달시켜 예술품 거래에 활기를 주었다. 그리스에서 전시품은 종교상의 제사에서 예배의식의 장식품으로 이용됐고, 로마에서도 역시 예술품 거래는 종교적 행사와 연관되어 행해졌다. 로마제국의 확장과 더불어 전쟁의 전리품의 전시는 이태리로 이어져 종교적 행사, 공공기관의 행사, 군사들의 승리행진, 종교적 축제행렬의 시가행진으로 확산되어 마침내 예술품이나 신앙숭배 때 사용하는 귀중품은 국가권력을 상징하거나 개인적 부의 상징으로 이어졌다.<sup>12)</sup>

중세 휴머니즘 시대에 전시회는 학문의 대상으로 발전되었다. 교회의 재산목록이나 귀족, 제후의 수집품 리스트는 현대에 와서 학문대상으로서의 목록으로 변해왔다. 이와 동시에 예술술품 소장 리스트는 전시회 카타로그로 발전되었다. 실제로 현대적 의미의 전시회 카타로그 즉 작품의 목록과 전시회 관람자를 위한 안내서는 파리에서 개최된 Academie des Peintures et des Sculpture 전시회를 계기로 시작됐다.<sup>13)</sup> 1648년 전시회가 개최되면서 루이 14세때 아카데미가 설립되고 1673년에는 처음으로 전시회에 맞추어 전시회 카타로그가 발간됐다. 이때 그 기능은 예술품과 전시관람객의 가교 역할이었으며, 이 기능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1775년 전시회 카타로그의 부수는 8,000에 달했고, 1783년에는 20,000까지도 간행됐다.<sup>14)</sup>

이태리의 전시회는 파리의 아카데미를 모델로 18세기 중반부터 수많은 아카데미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전성기를 맞았다. 베니스와 플로렌스 아카데미 설립 후원자들은 그 지방의 특성에 맞게 서로 다른 전통을 살려 발전시켰다.<sup>15)</sup>

12) Koch, Gr. Fr., Die Ausstellungen, ihre Geschichte von den Anfängen bis zum Ausgang des 18 Jahrhunderts. Berlin. 1967. p. 20

13) Kullik op.cit. p. 4

14) Botzlar, Eva-Maria, Kataloge von Ausstellungen als Publikationsformen und ihre Behandlung in Bibliothekswissenschaft. Philosophische Fakultät der Universität Köln. 1982. p. 39

스페인 역시 18세기 페르디난드왕이 Real Academia de la Nobles Artes de San Ferdinando 를 마드리드에 1752년에 설립하면서 부터 전시회가 시작되고, 더불어 전시회 카타로그도 간행됐다.

영국의 아카데미 전시회는 유럽대륙의 여러나라와는 다른 발전 양상을 보였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유럽대륙으로부터 덜 구속되는 방향으로 영국 특유의 방식으로 발전했다. 영국의 전시회는 불란서와는 달리 현대적 의미의 국가 차원의 왕립아카데미가 아니고 개인의 차원에서 발전했고, 이에 따라 예술교육기관도 먼저 개인 예술가의 제안으로 18세기에 설립되었다.<sup>16)</sup> 1734년 Royal Academy가 설립되었고, Society of Artist가 여러 예술가의 참여로 설립되면서 지속적인 전시회를 개최해 폭넓은 대중을 포용했다. 또 영국에서는 다른나라에서 볼 수 없는 Milton-Gallery, Shakespeare-Gallery, Poet-Gallery등이 설립되었다. 이곳에서는 문학작품의 텍스트와 그림을 곁들인 전시회들이 개최되어 화려한 전시회 카타로그들이 출판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당시 영국 사회에서 예술적 감각과 생활 속의 문학, 더 나아가서는 세계문학에서 영국의 위력을 과시하는 행위이기도 했다.<sup>17)</sup>

독일은 일찌기 통일국가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관계로 아카데미는 각 지방 제후들의 후원으로 분산되어 설립되었다. 1696년 프리드리히 3세가 세운 Berliner Akademie 를 시작으로 17세기 말 예술학교와 아카데미들이 설립되었으나 후원자의 타계와 함께 큰 발전을 하지 못했다. 1731년 처음으로 비엔나에서 전시회가 열리고, 1786년의 전시회에서는 전시회 카타로그가 인쇄되었다.

19세기에 들어와서 박물관은 일반인들을 위한 사회교육정책의 일환으로 넓은 시민층을 흡수하기 시작하면서 전시회 카타로그의 내용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20세기 초 30년대의 전시회는 일반 대다수에게 전시작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사진까지도 제공하면서 특히 학교교육시스템과 밀접한 관계아래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이러한 발전은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이 여가시간의 활용과 접목됨으로써 예술품 감상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데 한 몫을 했다. 30년대 후 세계 경제부흥과 세계

15) Botzlar, op. cit. p. 39

16) Houghton, Beth and Gillan Varley, "A Local approach to national collecting. A UK feasibility study for the cooperative collection of exhibition catalogues" Art Libraries Journal. 1989. 14/1. p. 39

17) Botzlar, Ibid. p. 39

2차대전후의 안정으로 인해 예술품 전시회는 또다른 차원에서 예술에 대한 가치를 승화시키면서 일반인들의 생활에 침투되어 발전됐다. 이러한 발전을 거듭하면서 전시회 카타로그는 학문적으로도 예술사에서 중요한 문헌으로 자리매김되기 시작했다.<sup>18)</sup>

우리나라 전시회 카타로그의 탄생은 우리나라에 근대미술이 도입된 후 미술전시회의 개최와 함께 보고 있다. 최초의 미술전시회는 1916년 동경미술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10회 文展(일본 문부성 주최 신인공모전)에서 특선을 차지하고 고향인 평양에서 전시회를 가진 김판호 개인전으로 시작해서, 1921년 최초의 여류화가인 나혜석의 경성미술관 개인전과 같은 해부터 열렸던 소화협회전(1918년 조석진, 양중식, 고희동 등 13인이 조직한 최초의 미술단체 회원전)으로 이어졌다.<sup>19)</sup> 1922년부터 조선총독부가 만든 조선미술전람회(약칭 선전)에서는 1회부터 19회까지는 전시회 카타로그가 도록 형태로 만들어지고, 세계2차대전 즈음 20회에서 23회까지는 팸플렛 형태로 만들어졌다. 해방이 되면서 개인전, 동인전, 단체전, 초대전등 다양한 미술활동이 일어나면서 팸플렛 형태의 전시회 카타로그의 간행은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정부 수립 후 문화정책중 미술분야의 시책으로 1949년 문교부 고시 1호로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가 창설되면서 1회에서 5회까지는 팸플렛, 그 이후 부터는 도록의 형태로 전시회 카타로그가 정기적으로 발간되었다. 1984년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전에서 전시된 초기 우리나라 전시회 카타로그는 그의 형태 역시 다양했으며, 지금의 카타로그처럼 작품의 사진은 삽입되지 않았다. 6.25동란에는 부산을 중심으로 전시회가 열렸는데 이때의 팸플렛은 인쇄도 안된 갠지를 사용한 단순한 프린트물이었다. 팸플렛 형태의 전시회 카타로그에 사진이 등장한 것은 1954년 윤중식 작품전과 한봉덕 유화전이였다.

이때의 사진은 작품사진을 따로 찍어 팸플렛에 붙인 것이었다.<sup>20)</sup> 6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의 미술인들이 본격적으로 국제전에 작품을 출품하기 시작하고, 70년대부터는 경제성장과 함께 상업화랑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미술작품의 상품화가 활성화되고 전시회 카타로그도 아트지등 고급종이에 컬러작품사진을 실기 시작했다.

요즘들어 전시회 카타로그는 전자매체 시대의 Cyber Gallery의 출현과 함께 큰 변

18) Neuheuser, Hans Peter, "Ausstellungskatalog als spezifische Publikationsform" Bibliothek. Forschung und Praxis. 12(3).1988. p. 24

19) 김달진, **바로보는 한국미술**. 서울. 발언. 1995. p. 198-203

20) 김달진, 상계서. p. 203



화를 예고하고 있다. 전시회가 특정 장소 중심에서 탈피하여 인터넷으로도 접하게 되며, 전시회에 관한 정보도 PC 통신으로도 가능하게 됐다. 전시회 카타로그가 종이문화 형태로 계속 생산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간이 오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속단을 내리기 보다는 변화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3. 예술분야 문헌에서 전시회 카타로그의 위치와 특성

2차대전 후 자본주의 경제 질서아래 자유로운 예술품 상거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이와 더불어 도서관에서도 예술관련 정보 제공의 요구 또한 높아가고 있다.

그리하여 전시회 카타로그는 예술사 전문분야에서 완전히 독립된 문헌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 분야의 전문도서관에서 이 문헌의 비중이 전체 수서량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근래에 와서 전시회 카타로그가 예술분야의 중요한 정보원으로 그 위치가 더욱 확고해지는 경향에 따라 이 자료를 다시 인쇄하거나 마이크로화하고 있다. 특히 몇백년 된 영국과 불란서 박물관의 수많은 전시회 카타로그는 다시 인쇄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시회 카타로그가 현대인의 손을 거쳐 과거의 예술사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인식되고 있음을 뜻한다.<sup>21)</sup>

예술분야의 문헌에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여러 종류의 자료가 있다. 핸드북, 백과사전, 용어집, 학술잡지, 단행본, 화집, 슬라이드, 사진, 포스터, 복제그림, 전시회 카타로그, 박물관 카타로그, 경매 카타로그, 기념논문, 학위논문, 박물관소식지, 국제회의자료들이다. 본 장에서는 위에 열거된 자료 중 가장 일반적인 자료인 단행본과 학술잡지를 전시회 카타로그와 비교 대조함으로써 전시회 카타로그의 위치와 특성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예술분야의 단행본과 전시회 카타로그는 교육적 자료로서의 기능이 강하다. 단행본은 학생들의 교육에 치중된 반면 전시회 카타로그는 단행본의 내용을 기초로한 연구에 더 비중을 둔다. 전시회 카타로그의 장점은 새로운 연구 결과를 가장 빠르게 이용

21) Kullikop. cit. p. 79

자에게 제공한다는 자료의 최신성이다. 일반적으로 예술분야의 연구 결과는 학술잡지에 발표되지만 단행본이나 학술잡지는 그들이 출판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요한다. 반면 전시회 카타로그는 전시회 일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게재된 정보의 내용은 가장 최신의 것 일 수 밖에 없다.<sup>22)</sup>

전시회 카타로그와 단행본에 인쇄된 그림은 오리지널 색채로 매우 정교하고 그 질면에서도 예술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단행본의 출판사들은 높은 저작권 사용료 관계로 단행본에 주로 오래된 작품의 사진밖에 인쇄할 수 없다.

현대 또는 현재 살아있는 예술가의 그림을 단행본에 실기는 매우 비싸다.<sup>23)</sup> 일반 단행본의 저작권은 사후 50년인데 반해 예술작품의 저작권은 사후 70년이다. 현존하는 예술가나 사후 70년이 되지 않은 예술가의 작품을 단행본에 인쇄할 경우에는 예술작품의 사용법에 따라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sup>24)</sup>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개정된 저작권법은 미술품의 보유자는 소장, 전시등 제한된 권리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출판, 도록 제작등 제 2차 이용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5)</sup> 이 규정은 단행본에 최신의 작품을 소개하는 저해요소이다. 그러나 공공의 목적으로 팸플릿 형태의 전시회카타로그에 작품을 인쇄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다. 즉 공공의 목적으로 전시되는 전시회 카타로그나 상업성 위주의 경매 카타로그에 인쇄된 작품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시회 카타로그에서는 전문인이나 비전문인이 쉽게 또한 저렴하게 예술가의 최신 작품에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외 규정은 전시회 카타로그가 전시회 관람자에게 판매될때만 적용되고, 만약 전시회 카타로그가 일반 출판 유통과정을 거치면 저작권법은 일반 단행본과 같은 적용을 받는다.

저작권 사용료의 장점 이외에도 전시회 카타로그의 출판은 출판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전시회 카타로그의 출판 경비는 전시회 경비에 포함되어 있다. 전시회 카타로그의 출판비용은 전시회를 준비하는 쪽에서 부담하고 또한 출판된 자료의 홍보도 전

22) Botzlar, op. cit. p. 80

23) 미술서적 합부로 출간 못한다. 조선일보 1998. 2. 5

24) Fromm, Fr. Karl und W. Nordmann. Urheberrecht, Kommentar... 4. Aufl. Stuttgart. 1979 Paragraph 3.

25) 홍계현 "네트워크관계에서의 디지털복제와 공정사용법 적용의 문제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 31권, 제4호(1997). p. 146

시회의 홍보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단행본과 비교해 볼때 전시회 카타로그는 전시회의 일정에 맞추어 출판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이 단점은 보충이 필요한 연구 결과를 전시회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시회 카타로그에 게재해야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물론 정해진 일정 자체가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자료 내용의 최신성과 맞물려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자료의 내실에서는 단점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회 카타로그는 자료의 최신성인 장점이 시간적 제약의 단점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시회 카타로그는 다른 미술분야의 자료에 비해 자료 배포의 범위가 훨씬 넓다. 전시회 주최기관은 세계적인 자료교관망을 구축하고 있어 최근 예술작품의 동향이나 연구 결과가 담긴 전시회 카타로그를 폭넓게 빠르게 배포할 수 있다.<sup>26)</sup>

미술분야 출판사는 특정 주제에 관한 자료를 출판할 때에는 대략 해당분야의 예술가, 학자, 기관의 수요를 예측한다. 출판은 예측된 수요의 범위에서만 행해진다. 반면 전시회 카타로그는 전시 관람자의 대상이 넓은 판재로 간혹 부수가 단행본보다 훨씬 높다. 또한 관람자의 수에 따라 전시회 카타로그를 재판하기도 한다. 한 나라에서 출판된 전시회 카타로그는 국내 관람자의 호응 뿐만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여 국외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서도 출판되기 때문에 그 판매량도 매우 높다. 예를 들면 New York Museum of Modern Art(1980)에서 열린 피카소전의 전시회 카타로그는 영국의 Thams&Hudson사에서 전시회의 개최 없이도 단행본 형태로 전시회 카타로그가 출판되었고, 1978년 Centre national de l'art et de culture moderne Georges Pompidore에서 개최된 Paris-Berlin1900-1933전시회는 독일에서 역시 전시회 개최 없이 Prestel사에서 전시회 카타로그만 단행본으로 출판됐다.<sup>27)</sup>

전시회 카타로그는 보고의 특성을 가진 동시에 예술사 연구에 있어서 유일한 도구 멘테이션이기도 하다. 예술사에는 두가지 기초자료가 있다. 그 하나는 예술적 창조의 결과인 작품이고, 다른 하나는 작품의 기법, 흐름, 의도를 알아내고 또 예술품을 직접 체험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위해 예술가의 글이나 입을 통해 나온 예술가의 직접표현이다. 전시회 카타로그는 이 두가지 기초자료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전시회 카타

26) Botzlar, op. cit. p. 81-83

27) Kullik, op. cit. p. 49

로그는 예술작품의 존재에 대한 증거이다. 예술품은 세월이 가면 작품의 소유자가 바뀌고, 작품이 갤러리나 예술상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카타로그는 예술품 존재 자체에 대한 유일한 증거이다. 이러한 작품에 대한 정보의 유일성 이외에도 전시회 카타로그에는 예술가의 경력이나 어느 다른 자료에서 보다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두번째 예술사에서의 기초자료는 예술가 자신의 글이다. 전시회 카타로그에는 예술가의 엽서이나 인터뷰 또는 그의 작품에 대한 해설이 게재된다. 현존하는 예술가의 카타로그에는 작품에 대한 해설과 평이 실리는게 일반화되어 있고, 이것은 예술사 연구에서 귀중한 자료가 된다.<sup>28)</sup>

전시회 카타로그는 예술품 보급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한다. 예술분야 출판에는 두가지 경향이 있다. 첫번째 이 분야의 출판 시장은 내용적으로 몇가지 한정된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 피카소 한 예술가에 관한 출판물만 하더라도 2600이상이나 된다. 이는 사람들이 항상 특정 예술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출판하여 결국 무명 예술가의 자리를 침식한다는 의미도 된다. 두번째 출판사는 인기위주와 상업성 위주로 출판을 이끌어가고 있다. 전체 도서출판에서 예술분야의 출판은 45%를 차지하며, 이 중에서도 핸드북, 관광상품으로써의 예술품 가이드와 같은 간행물을 제외한 순수 전문도서의 출판량은 극히 낮다. 전시회 카타로그는 이 두가지 경향을 어느정도 극복시키는 완충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예술품의 접근을 유도하는 매체 역할을 담당한다.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나 또는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예술가들은 그들의 작품을 비용이 많이드는 화집으로 출판할 가능성도 없지만, 설혹 출판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판매에서 보장할 수가 없다. 이러한 예술가의 작품은 전시회 카타로그를 통해서만이 쉽게 일반에게 접근될 수 있다.

#### 4. 전시회 카타로그의 기능

전시회 카타로그는 전시회의 부산물에서 전시회의 동반자로서 전시회의 불가결한 요소이다. 전시회 카타로그가 미술 전문인이나 일반인에게 중요한 정보원으로서의 간주되는데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기능에 기인한다.<sup>29)</sup>

28) Botzlar, *Ibid.* p. 84

### 1) 관람자에게 부여되는 기능

불란서 혁명 이래 예술품 전시회가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전시회 카타로그는 교육적 기능을 갖게 됐다.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박물관도 불란서 혁명 때 까지는 특수층의 소유물이었다, 혁명 후 전시회가 일반에게 공개되면서 넓은 시민층이 전시회를 관람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예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같은 변화로 인해 작품에 대한 해설, 암시, 우화적 표현, 설명등이 자연스럽게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역할은 전시회 카타로그가 맡게 되었다. 전시회의 성공 여부는 전시회 관람자의 작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정도에 좌우되었다. 이와 더불어 전시회 카타로그는 관람자들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필수도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이는 전시회 카타로그가 출판계에서도 하나의 중요한 도큐멘테이션의 위치를 확보하게 된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시회 카타로그의 작품과 관람자간의 매개체 역할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다. 또한 전시회 카타로그는 전시회를 직접 관람하지 못한 사람에게 전시회를 대신할 수 있다. 일정 기간 동안만 계속되는 전시회를 관람하지 못한 사람에게 원작을 충실히 재현하여 컬러인쇄를 하고 비싼 고급종이를 사용하여 발간하는 전시회카타로그는 전시회를 축소하여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전시회가 끝나면 남는 것은 전시회 카타로그밖에 없다”라는 예술가들의 이 한마디는 전시회 카타로그의 위치와 가치를 한층 더 확고히 해준다.

### 2) 전시회 주최자에게 부여되는 기능

전시회 카타로그는 전시회 주최자에게 두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출판 관련 분야에서 전시회 카타로그는 경제적인 측면과 학문적인 측면에서 관찰되어야 하며 이 두가지 면은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 먼저 예술사적 전시회는 오늘날 관광사업에서 큰 매력을 지니고 있다. 전시회를 개최하는 도시나 전시장소에게 전시회는 부가가치 상품이 된다. 전시회카타로그는 전시회의 한 부분으로서 전시회와 함께 출판되고, 전시회와 함께 홍보됨으로써최저의 비용으로 전시회를 개최하는 도시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학문적인 측면에서 전시회는 전시회 카타로그를 통해 예술분야의 연구 결과를 널리 알리게 된다. 오늘날의 전시회 카타로그는 잘 알려있지

29) Botzlar, op. cit. p. 48

많은 예술품은 널리 알리는 홍보 역할 보다도 여러나라 언어로 예술 분야의 학문적 연구 결과를 알리는 기능이 더 부각되고 있다. 전시회 카타로그는 전시회의 일부분이지만 최근에 와서는 전시회 카타로그가 전시회를 위해서 만들어지기 보다는 카타로그를 위해서 전시회가 준비된다고 할 정도로 카타로그는 전시회의 결정체가 되고 있어 결국 전시회 카타로그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 오늘날 대규모 전시회는 예술품 소장자의 소재를 밝혀내지 못하거나, 고가인 보험료나 그외의 문제로 인해 기획했던 규모대로 전시회가 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전시회 카타로그는 전시회에서 모두 전시되지 못한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기능도 담당한다. 이 외에도 전시회 카타로그는 전시된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또는 비교를 위해 다른 작품도 보여준다.

### 3) 예술가에게 부여되는 기능

전시회 카타로그가 없는 전시회는 제대로 된 전시회가 이니다라고 할 정도로 현존하는 예술가의 전시회에서 전시회 카타로그의 위치는 막대하다. 또한 젊은 예술가에게는 그의 첫번째 전시회가 미래 예술가로서의 행로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기서 전시회카타로그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 젊은 예술가의 전시회 카타로그는 그의 활동 무대를 넘어 작품을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흔히 젊은 예술가의 전시회 카타로그에는 만약 전시회가 실패로 끝날 경우 재시도 한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시 장소와 개최일자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카타로그를 관리해야 하는 사서들은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 4) 예술품 자체에 부여되는 기능

일반적으로 전시회에 걸려있는 작품의 뒷면에는 전시회 참여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이 정보를 통해 예술품의 경로를 알 수 있으며, 만약 예술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시회에 출품되었다면 그 작품의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오늘날 예술품 시장에서는 전시회카타로그에 작품이 정교한 색채로 대형으로 인쇄되면 그 자체로서 작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또 작품의 대여자는 작품의 대여 조건으로 전시회 카타로그의 표지나 전시회 플래카드에만 인쇄를 허락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전시회 카

타로그는 일반 소장가에게 숨겨있는 예술품을 세상에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 5. 전시회 카타로그의 구성 내용

전시회 카타로그는 전시회에 전시되어 있는 대상에 대한 기록과 묘사를 첫번째 과제로 삼는다. 모든 전시회 카타로그가 아래 열거된 형식을 취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30)</sup>

### 1) 전시회 카타로그의 구성에 대한 정보

전시회의 내용 보다는 외적 형식, 즉 언제 어디서 얼마동안 전시회가 계속되며, 전시회에 참여하는 기관, 참여 예술가의 리스트, 카타로그의 편집인, 전시회 설치에 관여한 기술자, 전시회 기획 책임자, 실내장식가, 조명자 등을 알리는 곳이다.

### 2) 서문, 머리말

전시회 카타로그의 출판 배경과 인사말이 포함된다. 이것은 주로 평론가, 정치가, 전시회 개최 지역의 명사들이 맡는다. 이들은 전시회를 통해 문화 예술의 가치와 문화 정책을 연계시켜 일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춘다.

### 3) 서언

전시회의 의미가 학문적인 성과와 연계시켜 소개되며, 전시회를 개최한 동기, 주제, 준비과정 등을 어느정도 상세히 알리는 공간이다. 예술품 소장가들에 대한 재정적인 배려와 일반 소장가들과의 관계등 전시회와 관련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곳이다.

### 4) 작품 해설과 평

다음에 설명하게 될 “전시품에 대한 묘사”란에서는 전시회 주제와 관련하여 각 작품의 관점을 학문적인 차원에서 논하고 비평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각 작품에 대한

30) Neuheuser, op. cit. p. 245

특징을 미리 소개하는 곳이다. 특히 이곳은 기존의 작품에 관한 정보를 근거로 최근 전시품의 학문적 연구 결과를 알리는 곳이다. 또한 여기서는 전시 작품을 개인 소장 작품이나 지역의 유명 예술품과 비교하여 새로이 발전된 결과를 알리는 장이기도 하다. 전시화카타로그에서 이 난은 전시회의 학문적 목적을 가장 적절하게 논하는 장이기 때문에 특히 이 분야의 연구자, 미술사학자에게는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 된다.

### 5) 전시 작품의 묘사

전시 작품이 오리지널 이진 복제품이건 전시물에 대한 비평가의 묘사는 카타로그의 핵심이다. 이 부분의 내용에 따라 전시회 카타로그의 가치나 전시회의 중요성이 평가되고, 또한 이에 따라 예술가의 미래 행로가 좌우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작품을 형식과 내용 두 관점에서 묘사하여 다른 작품과 비교하면서 작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이 제시되는 곳이다.

### 6) 작품의 사진

원작을 충실히 재현하기 위해 컬러 인쇄에 목직한 아티지를 사용하는 비용은 간단한 시집을 출판할 정도와 맞먹는다. 이러한 비용은 전시회를 두번 치룬다는 의미를 갖는 정도로 부담이 되고 있다. 전시 작품의 사진은 관람자들이 작품을 돌아 보는 동안 각 작품의 설명과 실제 작품과 연결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 사진은 전시회가 끝나더라도 영구히 사진 도큐멘테이션으로서 그 가치를 가지게 된다.

### 7) 용어

전시회 카타로그의 교육적 역할과 관련하여 일반 관람자들은 작품에 대한 해설이나 설명에서 전문용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의 해결을 위해 전문용어의 풀이를 차례로 해주는 곳이다.

### 8) 참고문헌

작품의 해설이나 묘사에서 인용되는 문헌의 나열이다.



## 9) 예술가 약력

개인전의 경우 어떤 문헌에서 보다 가장 상세하게 예술가의 발자취가 소개되는 곳이다. 또한 여기에는 예술가의 출판물도 소개되어 서지의 구실도 하게된다.

# Ⅲ. 전시회 카타로그의 관리

## 1. 전시회 카타로그의 수서

Richmond<sup>31)</sup>는 전시회 카타로그가 자료로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종합했다. 첫번째는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학술문헌과 출판 질서 사이에서 전시회 카타로그에 관한 참고도구의 부재현상이다. 현재는 단행본 형태의 전시회 카타로그는 국가서지에 게재되지만 50년 전에만 해도 이 자료는 무시되었었다. 70년대 와서 일반 출판유통 과정을 거치는 이 자료는 1%에 달했다. 두 번째로 전시회 카타로그에 관한 정보를 갖고있더라도 담당자가 실제로 자료를 입수하는데는 다른 자료에 비해 더 많은 노력을 요한다. 세번째 전시회 카타로그에 관한 정보는 사서가 구입 결정을 내리는데 충분할 정도로 기술되지 않는다. 국가서지에 기술된 전시회 카타로그에 관한 정보는 완벽하지 않으며, 또한 서지 자체도 너무 늦게 출판되었다.

전시회 카타로그는 전형적인 그레이리문헌( grey literature, printed empha)이다. 이 회색문헌은 일상적인 구매경로를 통하여 입수할 수 없는 자료로서, 그 매체가 다양하여 서지사항의 파악이 어렵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sup>32)</sup> 이렇듯 이 자료는 일반 출판사에서 출판되기 보다는 개인 편집자에 주도되어 갤러리, 박물관, 협회등 전시기관을 통해 배포된다. 또한 전시회는 전시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전시회가 지난 후에

31) Richmond, N. W., "Introduction" The World Art Catalogue Bulletin. 1(Fall. 1963) p. 2

32) 최선희 외, "인터넷을 통한 회색문헌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연구" 제4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는논문집. 1997. p. 55

전시회 카타로그를 입수하기에는 매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이미 1970년에만 해도 전 지구촌에서 매일 5,000곳에서 연간 6,000-20,000이상의 전시회 카타로그가 간행되고 있었다.<sup>33)</sup> 오늘날 매일 생산되는 전시회 카타로그의 양은 이 수치를 훨씬 상회한다. 이렇게 많은 전시회 카타로그에 대해 파악하고 수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전시회 카타로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초판만을 발행하고, 또 자료 자체도 빠른 시일 내에 절판되고 노후되기 때문에 자료의 입수를 위해서는 신속히 전시회 개최에 관한 정보와 전시회 카타로그의 발간에 관한 정보를 동시에 얻는 것이 중요하다.

### 1) 전시회 카타로그의 수서도구

전시회 카타로그를 입수하는데 위에서 설명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주로 전시회 카타로그 서지통정에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자료의 입수를 위해서는 먼저 자료의 발간에 대한 정보가 우선이다. 전시회 카타로그에 대한 수서도구에는 전시회 칼렌더, 전문학술지, 전시회 카타로그 판매목록, 전문서지, 전시회 카타로그 서지, 도서관 소장목록등이 있다. 여기서는 3.3의 전시회 카타로그의 이용부분에서 다룰 도서관 소장목록을 제외한 위의 참고자료들이 다루어진다.

#### (1) 전시회 칼렌더

전시회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이 자료는 여러나라에서 간행되고 있다. 소규모 개인 전 까지도 포함되는 이 자료는 전시자의 정보에 의거하여 작성되므로 어느정도 완벽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시회 카타로그의 간행에 관한 정보는 기재되지 않으므로 전시회 카타로그의 구입을 위한 참고자료로써는 약간 문제가 있고, 설혹 카타로그의 발간에 관한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서지사항과 특히, 가격에 관한 정보가 전무한 관계로 구입 결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유명한 전시회 칼렌더에는 불란서의 L'Officiel des Galeries, 네델란드의 Tentoonstellings Agenda, 미국의 Art Now-New York Gallery Guide, 독일의 Das Belser Kunstquartel등이 있다.

#### (2) 전문학술지

33) Botzlar, op. cit. p. 87

미술분야 전문학술지에는 어느 학술지 처럼 최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시회 소개란에는 전시회의 일정 이외에도 전시회 카타로그에 관한 정보가 비교적 정확하고 상세하게 제공되므로 전시회 카타로그의 입수에 중요한 정보원이 된다. 학술잡지의 정보에 의하여 전시회 카타로그를 구입할 때는 지역의 대행서점을 통하는것 보다 직접 출판사에 의뢰하는 것이 유리하다. 학술잡지에 게재된 정보는 이미 전시회가 끝난 몇달 전의 정보이기때문에 이 자료의 특성상(최신성,노후성,절판 가능성) 구입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전시회와 전시회 카타로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대표적인 전문 학술지에는 다음과같은 것들이 있다.

- Gazette des Beaux Artes: 1859년 Charles Blanc 가 월간으로 간행하기 시작했다. 여기의 Musees et Monuments 란에는 불란서를 우선으로 하여 전시회 개최국 순서로 전시회명이 나열되고, 기 외에도 전시회에 관한 논평과 전시회 카타로그에 대한 특징을 덧붙이고 있다.
- Pantheon : 국제적 학술지로서 1928년 부터 Erhardt Stebner가 계간으로 출간한다. Museen und Galerien란에는 전시회에 대한 평과 전시회 카타로그에 관한 리뷰도 실린다.
- The Art Bulletin : College Art Association of America사가 1913년 부터 계간으로 간행하고 있다. Note란의 Book Review에는 전시회카타로그에 관한 리뷰기 실려 있고, 또 List of Books Received란에는 전시회 카타로그에 대한 정확한 서지사항과 가격에 관한 정보도 제공되고 있다.
- Art Journal : 역시 College Art Association of America사에서 출판한다. Book and Catalog Received에는 전시회 주최단체, 개인 예술가의 순서로 전시회 카타로그와 그 가격에 관한 정보가 실린다. 이 외에도 런던의 Burlington Magazine, 스위스 미술가 협회의 Kunst Bulletin, 문헨의 Kunst Chronik과 Weltkunst등이 있다. 현존하는 예술가의 전시회에 대해서는 Art International Kunst, Flash Art, Art Press, Chronique de l'Art vivant, D'Ars 등이 있다

### (3) 전시회 카타로그 판매목록

예술분야 전문서점상들은 학문적으로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전시회 카타

로그나 혹은 전시회가 끝난 후의 나머지 전시회 카타로그를 그들의 창고에 확보해 두는 판매전략을 세우는 예가 허다하다. 이미 전시회가 지난 또는 절판된 전시회 카타로그를 입수하기 위해서 사서는 전시회 카타로그 판매목록을 접해야 한다. 이때 전시회 카타로그는 골동품처럼 취급되는 관계로 본래의 가격 보다 비싸다. 대표적인 전시회 카타로그 판매도서목록은 다음과 같다.<sup>34)</sup>

- Worldwide Art Catalogue Bulletin: 1964년 부터 Worldwide Book Inc.에서 계간으로 발간한다. Worldwide Catalogue Center는 1962년 설립되어 약 300여개의 미국과 외국의 유명 박물관, 갤러리와 협력하여 약 3500 전시회 주최 기관으로 부터 연간 700 내지 900종의 전시회 카타로그를 제공받는다. 이 중에는 아직 출판 예정인 전시회 카타로그에 대한 정보도 미리 접할 수가 있다. 여기에 실린 전시회 카타로그에 관한 정보는 미술사학자에 의해 기술 될 뿐만 아니라 카타로그의 크기, 가격등에 관한 정보 까지도 있어 이 자료의 구입을 결정하는데 긴요한 정보원이 된다. 이 Bulletin은 출판사에 직접 주문 뿐만 아니라 특정 주제에 관해 간행되는 출판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Standing Order도 가능하다. 또한 이 자료는 SCIPPIO란 데이터베이스명으로 RLIN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공된다.<sup>35)</sup>

- Florentiner Centro Di : 플로렌스에서 격주간으로 발간되는 두번째 국제 규모의 판매목록이다. 이 목록에는 전시회 카타로그에 관한 정보가 매우 상세하며, 반년마다 출판되는 색인지는 전시회 카타로그의 내용과 형식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종합적인 전시회 카타로그의 출판과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불란서의 출판사로는 Services techniques et commerciaux de la Reunion des Musees nationaux가 있다.

또 베를린의 Wasmuth and Galerie 2000과 Koln의 Walther Konig, 스위스의 Krauthemen들은 유럽에서 미국의 Worldwide Art Catalogue Bulletin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판매도서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

#### (4) 전문서지

예술 분야의 전문서지에도 전시회 카타로그에 관한 정보가 실리지만 완벽하지 않

34) Rucker, Elisabeth, "Beschaffung und Verzeichnung von Ausstellungskatalogen" ASpB Bericht über die 16. Tagung in Augsburg, 1-4 März 1977. Berlin. p. 204

35) 박은지, 배순자, 최은주, 인문과학정보론. 한국도서관협회. 1997. p. 351

고 또한 정보의 최신성이란 한계도 있어 여기서는 대표로 국제규모의 유명한 서지 몇개만을 간단한 소개로 대신한다.<sup>36)</sup>

- RAA(Repertoire de l'art et d'archeologie,1910-
- RILA(Repertoire Internationa de la Literatur de l'Art,1975-
- BHA(Bibliography of the History of Art. 1991년 부터 RAA와 RILA가 합병됨.
- Art/Kunst,1971-
- ABM(Artbibliographies Modern), 1969-
- Bibliographic Guide to Art and Architecture,1975-

#### (5) 전시회 카타로그 서지

바로 위에 열거된 서지는 주로 분야별 선택적 서지이나 1988년 부터 간행되고 있는 CATALOGUS: Bulletin bibliographique trimestriel illustre de recents catalogues d'exposition d'art contemporain, Institut des hautes Etudes en Arts Plastiques(IHEAP), Paris 1988(=Supplement de Cahiers du Musee national d'art moderne 25,1988-)는 20세기 예술 전시회 카타로그를 총 망라한 순수 전시회 카타로그 서지이다. 이 서지는 개인전과 그룹전으로 나뉘어지고, 배열은 개인전의 경우 예술가명, 전시 장소, 전시 주최기관명으로 되었다. 이 외에 전시회 카타로그 서지라 할 수 있는 것으로는 ABM의 색인지로 간행되고 있는 Museum and Gallery Index이다. 이 색인지에는 전시회 카타로그에 관한 정보와 International Exhibition으로 분류되는 난에는 전시회에 관련하여 출판된 평론에 관한 정보도 실려 있다.

## 2) 전시회 카타로그의 수집

학술도서관이나 예술 전문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시회 카타로그의 규모는 미국의 경우 30,000에서 2,100,000중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sup>37)</sup> 피카소 한 개인에 관한 출판물만 하더라도 2600종 이상이며, 이중에서도 전시회 카타로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시회 카타로그는 미술 전문도서관에서 단일 자료의 유형으로서는 30내지 40%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자료이다.<sup>38)</sup> 문화수준의 향상은 이렇듯 국내 예술

36) Kullik, op.cit. p. 72-74

37) Taylor, op. cit. p. 49

38) 이정민, DDC 미술분야의 수점전개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논문, 1996.

가의 국내 전시회, 국경을 초월한 국내 예술가의 해외 전시회, 해외 예술가의 국내 전시회등을 통해 수많은 전시회 카타로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과거에 전시회 카타로그는 전시회의 일부분이었지만 최근에 와서 전시회 카타로그는 전시회를 위해서 만들어지기 보다는 카타로그를 위해서 전시회가 준비된다고 할 정도로 카타로그는 전시회의 결정체가 되었다. 즉 다시말하자면 전시회 카타로그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전시회 카타로그를 수집하는데는 도서관의 어느 자료와 마찬가지로 구입, 기증, 교환의 방법이 있으나 전시회 카타로그는 자료의 특성상 기증과 교환을 통한 수집의 비중이 구입을 통한 수집보다 더 높다.

매일 열리는 전시회 카타로그를 완벽하게 수집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세계 곳곳에서 매일 간행되는 전시회 카타로그의 수집을 위해서 담당자는 매일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전시회 초청장, 신문의 전시회 관련 정보란, 출판물 목록등을 체크한다. 교환이나 기증으로 입수 할 수 없는 카타로그를 신속하게 수집하기 위해서 사서는 직접 전시회를 방문한다. 이러한 방문은 일주일에 하루나 이들의 반나절을 할애한다.<sup>39)</sup> 직접 전시장의 방문이 여의치 않을 때는 그들 직원 혹은 관련 연구자들이 여행을 하거나 전시회 방문을 할 경우 일부러 전시회 카타로그의 수집을 의뢰한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수집이 원활하지 않으면 담당사서는 전시회 주최기관에 서면을 통해 직접 주문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문은 전시회 기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서의 신속한 대처가 요구된다. 국내 전시회는 대략 이러한 방법들로 효과를 보지만 외국의 전시회 카타로그에 있어서는 환전 관계로 간단하지는 않다.

위의 방법을 통해서 자료의 수집이 어려울 때는 담당자는 전문서적상이나 특수 전시회 카타로그 출판사에 자료를 주문한다. 출판사와 전시 주최기관 공동으로 카타로그를 간행할 경우에는 카타로그의 배포나 판매는 주로 전시회 주최기관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적상을 통해 카타로그를 입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박물관이나 갤러리등과 같은 기관이나 단체는 원칙적으로 서적상에 판매권을 넘기지 않고 자료를 직접 관장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특정 전문서적상들은 중요한 전시회 카타로그를 미래의 수요를 예측해서 미리 확

---

p. 21

39) Fitzpatrick, op. cit. p. 117

보해놓는다. 이렇게 어느정도 능력이 있는 전문서적상을 통해 지년간 전시회 카타로그를 수집할 때에는 전시회 카타로그의 가격이 직접 발행기관에서의 구입 보다 더 비싼점을 감수해야 한다.

순회전시회 카타로그는 각 나라,지방에서 전시회가 개최될때마다 전시회 카타로그가 생산된다. 특히 국경을 넘는 순회전시회는 전시회의 내용이 동일하여 카타로그 역시 같을 수도 있지만 전시 내용이 약간 변경되어 카타로그 역시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반대로 동일한 전시회 카타로그이지만 표제나 서문만 약간 변경하여 새로운 카타로그 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사서는 착오로 복본을 구입하게 되거나 또는 중요한 카타로그를 복본으로 착각하여 입수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예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판매도서목록을 통해 전시회 카타로그를 구입할 때는 여기에 인쇄된 주문서를 이용하되, 대금은 자료의 배달 후에 지불된다. 그러나 외국의 전시회 카타로그를 주문할 때는 지불 결재 후에 자료가 배달되는 관계로 주문할 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필수이다.

외국의 전시회 카타로그를 구입하는데는 주로 통합계속주문(Standing Order System)방법이 이용되고 있다.<sup>40)</sup> 1987년 문헌의 예술사연구소에서는 1223종의 외국 전시회 카타로그 구입 자료중 약 80%인 968종이 5군데의 Standing Order파트너를 통해 이루어졌다.<sup>41)</sup> Standing Order System에서는 어떤 서적상을 파트너로 정하느냐에 따라 자료의 수명이 짧은 전시회 카타로그의 구입에 영향을 받는다. Standing Order System을 통해 자료를 입수할때는 가능한 한 재정적으로 든든한 서적상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주문을 의뢰하는 도서관쪽에서는 어떤 나라, 어떤 기관이나 단체, 누구의 전시회 카타로그를 원하는지 원하는 자료의 성격을 분명히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해야 한다.<sup>42)</sup>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전시회 카타로그는 기증과 교환을 통한 수집의 비중이 구입보다 더 높다. 위 연구소에서는 1년간 5,500종의 수집에서 36%인 1979종이 전시회 카타로그였다. 이중에서 1223은 구입 441은 기증 315는 교환을 통해서 입수되었다.

40) 송영희 외, **잠서개발론** 서울 구미무역, 1992(현대정보관리학회총서,18), p. 171

41) Lersch, Thomas, "Graue, teuere Freund, ist alla Theorie" BFB. 17(1989)3. p. 345

42) Lersch, Ibid. p. 346

또 다른 문헌의 국립 미술관 도서관은 전체 전시회 카타로그중 80%를 홍보와 교환을 통해 수집했고, 미국의 예에서는 Taylor<sup>43)</sup>에 의하면 Standing Order System을 통해 17%, 박물관간의 교환에 의해서 31%, 기증을 통해서 28%, 박물관과 서점에서 직접 구입은 각각 14%와 24%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집량의 약 60%가 기증과 교환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도서관마다 자료 수집의 환경에 큰 차이를 보이지만 교환과 기증을 통한 전시회 카타로그의 입수는 상당량을 차지해 어느 다른 자료의 수집에서 보다 사서의 역량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자료의 교환은 도서관간의 상호교류에 의해서만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수집 방법이 될 수 있다. 각 기관간의 상호협정에 의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자관에서 출판한 자료나 교환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상호교환하는 포괄적 교환 방법을 통해 전시회 카타로그를 수집할 때는 먼저 교환 대상물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교환 대상물로서는 도서관의 소장목록, 전시회 카타로그 수서목록, 안내책자, 소속기관의 Brochure 등이 있다. 만약 도서관끼리 교환용 자료에 너무 큰 차이 날 경우, 예를 들어 카타로그가 너무 방대하거나 고가일 때에는 일반 구입 절차를 밟는 것이 상례이다. 능동적인 교환을 위해서는 세계의 유명 박물관과 갤러리를 교환 파트너로 정하여 끊임없는 정보를 교환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상업성 위주의 갤러리 전시회 카타로그는 예술품의 매매가 목적이기 때문에 도서관에 자료를 보내는데 관심을 갖지않은 경우가 허다하므로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각 나라마다 효율적인 전시회 카타로그의 수집을 위해 협동수서 계획들이 고안되거나 연구되고 있다. 미국 예술도서관협회(ARLIS/NA, Art Libraries Society of North America)에서는 전시회 카타로그의 협동수서 프로그램을 위해 먼저 미국 예술도서관협회 회원명부를 만들었다. 그들은 전시회 카타로그 전반에 관한 문제점들 중에 특히 자료의 중요성과 수집의 어려움에 관한 의견 교환을 했다. 1991년에는 ARLIS/NA 년례회의에서는 ARLIS/NA's Strategic plan for 1990-1996을 기획하여 전시회 카타로그의 교환프로그램을 발표하고 토론하는등 이 자료에 관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영국에서도 영국예술도서관협회(ARLIS/UK)를 중심으로 전시회 카타로그의 수집

43) Taylor, op. cit. p. 78



을 위한 연구 ARLIS/UK and Erie National Collecting Network for Art Exhibition Catalogues : A Feasibility study가 영국 국립도서관 개발사업부에서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단행본 형태의 전시회 카타로그는 국가서지에 기술되어 문제는 없지만 비도서형 전시회 카타로그의 수집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지역 중심의 수집안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MARC포맷도 전시회 카타로그의 서지레코드에 적합하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권장하고 있다.<sup>44)</sup>

캐나다에서는 1980년 현대시각예술에 관한 자료의 배포와 수집을 목적으로 Le Centre d'information Artexite가 설립되었다. 이곳에서는 특히 전시회카타로그와 캐나다 시각예술 두 분야에 중점을 두고 현대시각예술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1985년 부터 영어와 불어로 구축하고 있다.<sup>45)</sup>

독일은 예술도서관협회의 규정대로 전시회 카타로그의 수집과 이용은 몇백 년 동안 지속되어오고 있는 독일 국가협동수서프로그램(SSG-Program)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백림의 프러시아 국립도서관의 예술도서관과 뮌헨의 예술사 도서관센터에서 국내외 예술 관련 자료의 수집과 이용을 책임지고 있다.<sup>46)</sup>

아일랜드에서는 전시회 카타로그의 수집과 서지기술을 위해 AVIL(The Association for the Visual Art in Irland)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1993년 Dublin에서 NCAD (National College of Art and Design)의 주최로 전시회 카타로그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 자료의 중요성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었음을 보여주었다.<sup>47)</sup>

## 2. 전시회 카타로그의 정리

### 1) 전시회 카타로그의 분류

전시회 카타로그의 정리에 사용되는 분류표는 도서관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미국은 공공도서관에서 주로 사용되는 DDC를 제외하고는 학술도서관이나 미술 전문도서

44) Houghton, op. cit. p. 39-41

45) Leger, Daanielle, "Le Centre d'information artexite Mediation du catalogue d'exposition et de la Francophonie" *Art Libraries Journal*, 1996, 21/3, 34-39

46) Lersch, op. cit. p. 350

47) Fitzpatrick, op. cit. p. 117

관에서는 LC 분류시스템이나 또는 이것을 약간 변형시킨 In-House-System을 사용하고 주제명목록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도서관이 LC의 주제명표목표(LCSH)을 사용하고 있다.<sup>48)</sup> 우리나라 국립현대미술관의 도서실·자료실에서는 KDC를 사용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전시회 카타로그의 배가는 어떤 일률적인 원칙에 의하기 보다는 도서관의 이용환경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시회 카타로그를 수집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은 단행본 형태의 전시회 도록은 개가제 도서실에 다른 일반 단행본과 같이 서가에 배열하고, 전시회 팸플렛은 과거에 여러개의 팸플렛을 묶어놓은 전시회 팸플렛북<sup>49)</sup> 형태로 만들어 따로 팸플렛 전용 서가에 배열하여 폐가제 자료실에서 관리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팸플렛북 형태의 자료관리에 이용의 문제가 제기되어 중단하고, 이들 자료를 파일자료로 자료실에서 관리하면서 전산화 작업의 준비를 계획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각분야 김세중작품의 단행본 형태의 전시회 카타로그는 도서실에서 620 조각, 우리나라 국가기호 11을 부가한 620.11에다 작가기호 07을 추가하여 620.11.07 로 분류되고 필요에 따라 시대구분된다. 반면 동일한 작가의 팸플렛형 전시회 카타로그는 분류번호 없이 주제내에서 예술인명에 따라 파일박스에 배열된다. 단체전이나 그룹전의 경우 책자형은 주제에 따라 분류되어 일반 단행본과 함께 일반 서가에 배열되고, 단체전이나 그룹전의 팸플렛은 주제별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606.8 전시 및 미술의 전시회 카타로그에서 그룹 및 단체명에 따라 파일서에 배열된다. 이와 다르게 미국의 대규모 미술 전문도서관에서는 개인전 전시회 카타로그는 단행본 형태의 전시회 카타로그나 팸플렛 등의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전시회 카타로그를 한군데 같이 모아서 폐가제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한장짜리 leaflet이나 카드처럼 아주 소규모 자료만을 파일자료로 취급하여 버티컬파일로 보관하고 그외의 모든 전시회 카타로그는 개인 예술가명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는 전시회 개최일자순으로 서가에 배열한다. 예를 들어 Jasper Jones의 전시회카타로그는 N40.1.에서 예술가의 성 첫자를 붙여 N40.1.j.로 분류된다.<sup>50)</sup> 미국 LC의 이러한 결정은 미술작품의 탐색에서 85.7%가 화가명에 일차적으로 의존하는 이용자의 행태<sup>51)</sup>와 일치

48) Taylor, op. cit. p. 66

49) 국립현대미술관, 1969-1996. 과천이전 10주년 기념 사료집. 1996. p. 265.

50) Taylor, lbid. p. 99

51) 황동열, 전게서, p. 111

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미국의 대형 미술 전문도서관들이 단행본 형태의 개인전 전시회 카타로그를 일반 도서와 같이 일반 서가에 배열하면 한 예술가의 단행본, 예술가에 관한 단행본(전기)과 동일 예술가의 전시회 카타로그를 동시에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전시회 카타로그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전시회 카타로그를 함께 모아서 한군데서 제공하는 방법이 전시회 카타로그의 이용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이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 방법을 위해 미국 미술전문도서관은 일반 참고도서만을 개가제로 운영하고 전시회 카타로그를 포함한 다른 모든자료는 폐가제 시스템으로 운영 관리한다. 전시회 카타로그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카타로그를 보관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가제 시스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도서관에서 전시회 카타로그를 파일 자료로 취급하는 환경은 카타로그의 외적 형태에 좌우되기도 하지만 도서관에 따라서는 전시회 카타로그의 내용, 즉 전시회 카타로그에 학자들의 논평, 작품 해설의 유무, 전시회 주인공의 중요도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파일자료로 취급되는 전시회 카타로그는 도서관에 따라 예술가명, 전시회 주최기관, 전시장소, 등록단체명등으로 배열하기도 하고, 또는 전시회 개최일자 순서에 따라 배열하기도 한다. 미국 몇몇 미술 전문도서관을 제외한 일반 미술도서관에서 파일 자료로 분류되는 전시회 카타로그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단면, 20내지 30페이지 이하 혹은 주제면에서 이용자의 요구가 높지 않으리라 예상되는 것. - 형태가 작거나 이상한 모양이나 크기.- 중요한 내용(최근 작품에 대한 동향, 학자의 견해, 논평, 작품 해설)이 결여된 것. - 50페이지 이하의 것. - 너무 간단하거나 작품의 사진이 없는 것.- 판매 위주의 개인 Show인 것. 바로 열거된 자료의 형태나 내용은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소책자에 대한 기준과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sup>52)</sup> 전시회 카타로그는 단행본 형태 보다 비정형 자료의 비중이 더 높은 관계로 이 자료의 완벽한 검색을 위해서 이용자는 카드목록과 온라인 목록 이외에도 동시에 각 도서관의 비도서자료 파일도 필수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52) 김남석, 非圖書資料 : 整理의 理論과 實際. 대구. 계명대학교. 1994. p. 314

## 2) 전시회 카타로그의 편목

일반적으로 전시회 카타로그의 목록에 있어서 단행본 형태는 일반도서처럼 편목되어 일반 도서와 함께 서가에 배열되지만 비도서 자료 형태인 팸플릿이나 그 외의 자료들은 각각 편목되는 경우가 드물다. 편목이 되지 않은 전시회 카타로그는 파일자료로 취급된다. 미국 미술전문도서관에서는 단행본 형태의 전시회 카타로그가 비도서자료 형태의 전시회 카타로그와 함께 보관되는 관계로 소규모 전시회 카타로그라도 가능한 한 편목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미국에서 전시회 카타로그의 편목은 Museum System Database, OCLC, RLIN을 통해 분담목록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편목규칙에 있어서는 각 나라마다 ISBD를 기초로 하여 만든 그들 고유의 편목규칙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AACR2와 Library of Congress Rules Interpretation, 독일에서는 학술도서관용 편목규칙 RAK-WB (Regeln für Alphabetische Katalogisierung, Wissenschaftliche Bibliothek)을 사용하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KORMARC를 근거로 하여 개발한 KOLAS Version 3.0을 사용하고 있다.

전시회 카타로그의 실제 편목에 있어서는 이 자료의 지적 책임성, 저작성, 즉 기본 표목을 무엇으로 정하느냐가 관건이다. 과거 전시회 카타로그의 기본표목은 단체명 원칙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점에 있어서 미국도서관과 유럽도서관들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LC에서는 그룹전이 아닌 개인전인 경우 주로 예술가명이나 전시회명을 주기입으로 택한 반면 유럽의 도서관은 전시회 장소, 전시회명, 전시 주최기관을 일차적으로 표목으로 선정하고, 전시회 카타로그 서명과 편집자명을 이차적 표목으로 선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예술가명은 주제명으로 취급하였다.<sup>53)</sup>

그러나 전시회 카타로그의 편목에서는 어느 방법도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단체명 기본기입의 경우 전시 장소와 주최기관이 동일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또 만약 전시회가 공원이나 유명한 성에서 개최될 때에도 역시 어려움이 따른다. 또 순회 전시회때 동일한 전시회가 장소를 바꿔가면서 개최되거나 공동으로 개최되기도 하며 또한 전시 횟수가 늘어나면서 전

53) Jackson, Lotta, "Art exhibition catalogues. The third european conference of the IFLA Section of Art Libraries, Florence, 2-5 Nov. 1988" *International Cataloging & Bibliographic Control* 17/8. 1989. p.147

사회 내용이 약간 변경되면서 처음 전시회와는 다른 전시회가 되기도 한다.

Tutankhamen 전시회를 어디서(기관이나 단체) 먼저 시작했으며 누가 전시회를 개최했는가를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한 전시회 타이틀이나 전시 장소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C Rules Interpretation 27.17B에서는 다음과 같이 권장하고 있다.<sup>54)</sup> If a catalogue of the works of a single artist also contains reproduction of the artist's work or reproduction and texts about the artist or the artist's work, enter it under the heading for the person who wrote the catalogue. If he or she is represented as the author of the catalogue in the chief source of information. Otherwise, enter the catalogue under the heading for the artist. 그러나 위의 조항 역시 다음과 같은 미흡한 점이 있다.<sup>55)</sup> 전시회 카타로그의 내용목차에 저자가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제지에 저자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예술가가 기본표목이 되어야 하는가? 또 전시회 주최자나 전시회 카타로그 텍스트 저자가 표제지에 있다면 이들이 기본표목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예술가의 작품으로 전시회 카타로그의 대부분을 메우고 있는 예술가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까? 전시회 카타로그에 작품이 인쇄된 경우 10페이지 짜리의 카타로그에 1페이지의 삽도가 있는 경우와 100페이지 짜리의 카타로그에 1페이지의 삽도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될까?. 이 외에도 전시회를 주관하는 큐레이터는 카타로그의 진정한 편집자나 편찬자 임에도 불구하고 표제지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편목에서 제외되는 점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 이렇듯 전시회 카타로그의 편목 문제에서는 완벽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관계로 도서관에서는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최선책이라 여겨진다.

다음은 위의 이렇게 까다로운 편목의 어려움을 사례로 제시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여 보았다.<sup>56)</sup>

54) Starr, op. cit. p. 11

55) Starr, Ibid. p. 11

56) Starr, op. cit. p. 12-14

<예시 1>

Fine, Ruth E., 1941-  
Helen Frankenthaler : prints/Ruth E. Fine-  
Washington:National Gallery of Art,New York :  
H.N. Abrams, c1993.  
59p.:ill.(some col.), port., 28cm.

"Exhibition dates : National Gallery of Art,  
Washington, 18April-6September1993 : San  
Diego Museum of Art, 25September-28Nov.  
1993 : Museum of Fine Art, Boston, 5 Jan.-13  
March1994 : Contemporary Arts Center, Cincin-  
nati, 8April-17June1994."-T.p.verso.Includes  
bibliographical references(p.159-160))

1. Frankenthaler, Helen, 1928.-Exhibitions.  
1. Frankenthaler, Helen, 1928.-II. National  
Gallery of Art(U.S.)

<예시 2>

Bledsoe, Jane K., 1937-  
Elaine De Kooning/[Introduction by]Jane K  
Bledsoe; essays by Lawrence Campbell, Helen  
A.Harrison, Rose Slivko.-Athens, Ga. : Georgio  
Museum of Art, Universityof Georgio, c1992.  
119p.:ill.(some col.);28cm.

Catalogue of an exhibition held of the Georgio  
Museum of Art, University of Georgio, Athens  
Mar.21-May3, 1992. [et al].  
includes bibliographical references(p. 115-119)

1. De Kooning, Elaine. I. Campbell, Lawrence  
II. Harrison, Helen A.III. Slivko Rose. IV. De  
Kooning, Elaine. V. Georgio Museum of Art

예시 1은 표제지에 전시회 카타로그의 저자로 Ruth E. Fine 이 분명히 명시된 예이다. 그러나 전시회 카타로그의 목차를 보면 Fine은 159페이지 짜리 카타로그에서 22페이지의 에세이를 썼을 뿐이므로 기본기입으로 간주하기는 곤란하다. 예시 2에서 기본표목으로 선정된 Bledsoe는 단지 서문의 저자일 뿐이므로 역시 기본표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시 3>

Evans, Walker, 1903-1975.  
Walker Evans Amerika:Bilder aus den Jahren  
der Depression:Katalog zur Ausstellung in der  
Städtische Galerien in Lenbachhaus, 17 Aug. bis  
15 Okt.1990/hrsg. von Michael Brix and Birgit  
Mayer; mit einem Vorwort von Armin Zweite;  
und Texten von Michael Brix, Christine Heriss  
und Ulrich Keller.- Munchen:Lenbachhaus, c1990  
265p.:ill.,28cm

Also published in a trade ed.:Munchen : Schimmer  
/Mosel, 1990.  
includes bibliographical refernces.

1. United States-Pictorial works-Exhibitions.  
2. United States-Social life and customs-1918-1945  
-Pictorial works-Exhibitions. 3.Depression-1929-  
United States-Pictorial works-Exhibition. 4  
Documentary photography-Exhibitions. I. Städtische  
Galerie im Lenbachhaus Munchen. II. Title.

Evans, Walker, 1903-1975  
[Walker Evans, Amerika.English]  
Walker Evans, Amerika/ed. by Michael Brix and  
Birgit Mayer, with an essay by Michael Brix-  
New York : Rizzoli, 1991.  
37p., 123p. of plaques:ill.,28cm.  
Partial translation of:Walker Evans, Aamerika.  
Originally published as the catalogue of an  
xhibition held Aug.15-Oct.15, 1990, at the  
Städtische Galerie im Lenbachhaus Munchen.  
includes bibliographical references(p. 28-31).

1. United States-Pictorial works-Exhibitions.  
2. United States-Social life and customs-1918-  
1945-Pictorial works-Exhibition. 3. Depressions  
-1929-United States-Pictorial works-Exhibitions.  
4. Evans, Walker, 1903-1975-Exhibitions I.Brix,  
Michael. II.Mayer, Birgitt, 1955-. III. Städtische  
Galerie im Lenbachhaus Munchen.

예시 3번은 오리지날 독일어 전시회 카타로그와 영어로 번역된 것에 대한 목록의 비교이다. 번역판에서는 페이지 수가 다르고 또한 전시회 카타로그의 내용에서 3편의 에세이가 빠져있지만 오리지날 카드의 섬세한 주기사항으로 인해 자료의 중복 구입과 편목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또한 번역판 편목카드에서 오리지날 전시회의 장소를 표시해 번역판과 오리지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서 동일한 카타로그임을 알 수 있다.

<예시 4>

Moholy-Nogy, Laszlo, 1895-1945.  
Laszlo Moholy-Nogy:[exposition] Musee Contini  
Marseille, 5juillet-15Sep., 1991:[catalogue/conception  
generale, Catherine David et Corinne Deserens].-  
Ed. rev. et corf. - Marseille:Musees de Marseille:  
Reunion des musees nationaux, 1991.  
535p.:ill.(some col.);30cm.

includes bibliographical references.

1. Moholy-Nogy, Laszlo, 1895-1945-Exhibition.
- I. David, Catherine. II. Diserens, Corinne. III. Musee Contini. IV. Reunion des musees nationaux (France).V. Title.

Moholy-Nogy, Laszlo, 1895-1946.  
Laszlo Maholy-Nogy : 21.April-16.Juni 1991,  
Museum Fridericianum/[Kuratorin der Aus-  
stellung, Carherine David]. - Kassel:Dokumenta  
und Museum Fridericianum GmbH, c1991.  
351p. : ill.(some col.); 29cm.

Bibliography : p. 318-339.

1. Moholy-Nogy, Laszlo, 1895-1946-Exhibition.
- I. David, Catherine. II. Museum Fridericianum.
- III. Title.

Moholy-Nogy, Laszlo, 1895-1946.  
Laszlo Moholy-Nogy/[Texte, Catherine David  
[et al.].- [Stuttgart]:G. Hatje, c1991.  
351p.:ill.(some col.);30cm.

Also published as the catalogue of an ex-  
hibition held at the Museum Fridericianum,  
Kassel, Apr.21-June16, 1991  
Bibliography:p. 318-339  
Buchhandelsausg.

1. Moholy-Nogy, Laszlo, 1895-1946-Exhibition.
- I. David, Catherine. II.Museum Fridericianum.
- III. Title.

Moholy-Nogy, Laszlo, 1895-1946.  
Laszlo Moholy-Nogy:IVAM Centre Julio  
Gonzale, 11febrero-7abril, 1991/[comisario:  
Catherine David].-[Valencia]:El centre, [1991]  
465 p. : ill, (some col.); 29cm.

Catalogue of an exhibition also held at the  
Fridericianum Museum, Kassel, April 21-June  
6, 1991, and at rhe Musee Contini, Marseille,  
on June 28-Sept.15, 1991.  
bibliography:p.435-457.

1. Moholy-Nogy, Laszlo, 1895-1946-Exhibition.
- I. David, Catherine.II. IVAM Centre Julio  
Gonzalez. III. Museum Fridericianum. IV.  
Musee Contini.

예시 4는 3나라 불란서, 독일 두군데, 스페인에서 개최된 순회전시회의 경우다. 독일의 예에서는 두개의 동일한 카타로그가 출판사와 박물관에서 출판되었다. 세나라 전시회 카타로그는 형태기술사항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스페인에서 출판된 카타로그에는 239작품, 독일에서 출판된 전시회 카타로그에는 227작품, 불란서에서 출판된 카타로그에는 215작품이다. 이러한 예는 동일한 전시회라도 순회전시회의 경우 장소를 옮길 때마다 전시의 내용이 달라져 별개의 전시회 카타로그가 간행되고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단행본 형태의 전시회 카타로그와 그외의 다양한 형태의 전시회 카타로그를 모두 편목하고있는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MOMA)가 단행본 형태 이외의 전시회자료들, 예를 들어 피카소 전시회 관련 자료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보았다.<sup>57)</sup>

1)  
New York(N.Y.). Museum of Modern Art.  
Pablo Picasso, a retrospective:[supplement]  
New York : Museum of Modern Art, 1980.  
1 folded sheet : 44 ill.; 29cm.

"The catalogue of the exhibition. . does not contain certain works that were borrowed after it had gone to press. The following listing is a complete record of these additional works."

1. Picasso, Pablo, 1881-1973-Exhibitions.

3)  
Pablo Picasso, a retrospective : selections from national and international press coverage.- [New York : Museum of Modern [51] leaves : ill.25 x 37cm.

Photocopies of reviews of the exhibition.

1. Picasso, Pablo, 1881-1973-Exhibitions.  
2. Reviews.  
3. New York(N.Y.). Museum of Modern Art.  
Pablo Picasso, a retrospective.  
1980. I. Museum of Modern Art(New York, N.Y.)

2)  
New York(N.Y.). Museum of Modern Art.  
Pablo Picasso, a retrospective : prints and illustrated books.  
[New York:Museum of Modern Art], 1980.  
1 folde sheet(10p.); ill.28cm.

Catalogue of exhibition, May 22-Sep.16 [extended to Sep.30], 1980.  
Text by Alexandra Schwartz.

1. Picasso, Pablo, 1881-1973- Exhibitions.  
2. Picasso Pablo, 1881-1973-Prints.  
3. Picasso, Pablo, 1881-1973-Illustrated books.  
I. Schwartz, Alexandra.

4)  
Pablo Picasso, a retrospective : the Museum of Modern Art, May 22- Sep.16, 1980:[press kit].- New York : Museum of Modern Art, [1980]  
1 portfolio : ill.; 31cm.

Publicity folder for the exhibition.  
Exhibition extended to Sep.30, 1980.

1. Picasso, Pablo, 1881-1973. I. New York(N.Y.)  
Museum of Modern Art. II. Museum of Modern  
Art(New York, N.Y.)

57) Starr, op. cit. p. 15-16



5)

Picasso, Pablo, 1881-1973.  
 Pablo Picasso, a retrospective/ edited by  
 William Rubin; chronology by Jane Fluegel.  
 - 2d printing, rev. - New York:Museum of  
 Modern Art; Boston : distributed by New  
 York Graphic Society, c1980.  
 463p.:chief ill.(some col.);29cm.

"Published on the occasion of the exhibition"  
 Pablo Picasso : a retrospective, 'May22-Sept.  
 16, 1980, organized by the Museum of Modern  
 Art, with the collaboration of the Reunion  
 des musees nationaux de France."  
 Bibliography : p. 459.

1. Picasso, Pablo, 1881-1973- Exhibition.
- I. Rubin, William Stanley.II. Fluegel, Jane.
- III. New York(N.Y.).Museum of Modern Art.
- IV. Reunion des musees nationaux(France).
- V. Title.

6)

New York(N.Y.). Museum of Modern Art.  
 Pablo Picasso, a retrospective/ edited by  
 William Rubin; chronology by Jane Fluegel.  
 - New York:Museum of Modern Art; Boston:  
 distributed by New York Graphic Society, c1980.  
 463p. : chiefly ill.(some col.); 29cm.

"Published on the occasion of the exhibition  
 'Pablo Picasso : a retrospective, 'May22-Sept.16,  
 1980, organized by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with the collaboration of the Reunion  
 des musees nationaux de France. . and directed  
 by William Rubin. . and Dominique Bozo."

Errata slip inserted.

ISBN 0870705288.\$50.00- ISBN0870705199(pbk)

1. Picasso, Pablo, 1881-1973-Exhibitions, 1980. I.
- Rubin, William. II. Bozo, Dominique. III. Fluegel,  
 Jane. IV. Reunion des musees nationaux(France).
- V. Title.

위의 6개 목록카드는 피카소의 한 전시회와 관련된 자료이다. 1은 5.6번의 전시회 카타로그의 부록, 2는 전시회와 관련된 checklist, 3은 해당 전시회와 관련하여 신문에 보도된 자료, 4는 전시회 opening show에 맞추어 언론에 보도된 kit 자료이며, 5는 오리지널 전시회 카타로그에 대한 2쇄이며, 6은 5번을 일반 출판 유통과정을 통해 출판한 전시회 카타로그로서 ISBN 까지 부여되어 있다. 이 모든 목록카드는 동일한 피카소 전시회에 관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기본표목이 전시회 개최지명, 전시회명, 예술가명으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5번과 6번은 동일한 전시회 카타로그이면서도 기본표목이 서로 다르게 선정되어있다.

이렇게 까다로운 편목작업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으로 두가지 실례가 있다.<sup>58)</sup> 그 하나는 1983년 협동편목을 위해 Worldwide Books Company 와Boston Public Library

58) Jackson, op. cit. p. 46-47

그리고 Library of Congress이 세 기관은 전시회카타로그의 서지통정을 위해 COBRA(Collaboration for Bibliographic Record in Art)를 출범시켰다. 이 세 기관의 협약아래 Worldwide Books사는 해마다 세계에서 출판되는 10,000내지 15,000종의 중요한 전시회카타로그를 보스턴 공공도서관에 기증한다. 이 도서관은 기증받은 전시회 카타로그에 대해 2주일 내에 서지레코드를 작성해서 LC에 넘기면 LC는 서지레코드의 배포와 판매전략을 담당한다. 이 COBRA프로그램은 최초로 영리회사와 공공기관이 협동한 분담목록이며, 이러한 분담목록을 통해 미국 도서관들은 취급하기 까다로운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두번째는 수집과 서지통정이 어려운 전시회 카타로그 온라인목록의 서지통정을 위해 Brooklyn Museum Libraries, Metropolitan Museum of Arts, Thomas J. Watson Library, Museum of Fine Art Boston's W.H. Hunt Library, Museum of Modern Art in New York등 5개 예술전문도서관이 협력하여 Art Museum Library Consortium을 결성했다. 이 협회에서는 도서관들이 전시회 카타로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일치를 보고, 특히 1980년 이전의 전시회 카타로그의 기계가독목록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 외에도 전시회 카타로그의 편목과 검색에 중요한 도구는 University of California에서 발간하는 The Art Exhibition Catalog Subject Index이다. 이 Index는 RLIN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갱신되는 이 색인지는 주제명, 전시회 카타로그 출판기관(박물관, 갤러리 출판사)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제명에서는 예술가명, 작품스타일, 미디어, 주제, 수집품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 3. 전시회 카타로그의 이용

전시회 카타로그의 이용에 있어서는 자료의 완벽한 검색이 관건이다. 일반적으로 단행본 형태의 전시회 카타로그는 거의 카드목록이나 온라인 목록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지만 본 논문의 2.1장에서 소개한 단행본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전시회 카타로그는 도서관마다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다. 도서관에 따라서는 비도서자료 형태인 전시회 카타로그도 각각 편목되어 온라인목록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단행본 형태의 전시회 카타로그를 제외한 모든 자료는 파일자료로 취급

되는 관계로 이 자료의 완벽한 검색을 위해서는 카드목록과 온라인목록 이외에 각 도서관의 파일자료의 검색을 빼놓아서는 안된다.

전시회 카타로그의 이용을 위한 서지사항은 일반적으로 온라인목록인 OCLC, RLIN, Museum System Database를 통해 가능하다. 전시회 카타로그의 이용을 위해서는 위의 온라인데이터베이스 이외에도 미술 전문분야에는 크게 두 종류의 정보원이 있다. 그 하나는 미술전문도서관의 소장자료 중에서도 전시회 카타로그만을 취급한 전시회 카타로그 소장목록이며, 두번째는 각 미술관 도서관의 소장자료 서지데이터베이스이다. 전시회 카타로그 소장목록은 정기적으로 간행되지는 않지만 전시회 카타로그의 이용을 위한 자료로서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Catalogue of Exhibition Catalogues : 1972년 Victoria and Albert Museum의 National Art Library에서 도서관 소장목록의 부록으로 출판됐다. 이 전시회 카타로그 소장목록에는 1820년부터 1970년 사이에 개최된 전시회를 연도별로 영국과 외국으로 분류한 뒤 전시회 개최기관명으로 배열했다. 이 소장목록에는 50,000전시회 카타로그 레코드가 수록되어 있다.

- Catalogue of the Art exhibition catalog collection. : Art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에서 1968년부터 매년마다 전시회카타로그의 수서 리스트를 마이크로펫쉬로 제작한다. 근래까지 20,000이상의 전시회카타로그에 대한 레코드가 기술되어 있으며, 주로 미국 지역에 중심을 두고 있으나 유럽의 전시회 카타로그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 Modern Art Exhibition 1900-1916. Selected catalogue documentation : Donald E. Gordon이 1973년 간행한 두권짜리 이 자료는 전문서지인 동시에 전시회 카타로그 소장목록이다. 55개의 도서관과 아카이브에서 수집한 851전시회 카타로그가 서지사항과 소장사항과 함께 연도별로 수록되어 있으며, 400명의 예술가가 어느 전시회에 그들의 작품을 전시했는가에 대한 정보와, 이외에도 거의 2000점의 작품사진도 곁들여 있다. 이 자료는 거의 전시회 카타로그 도큐멘테이션의 성격을 띄고있다.

- Der Katalog des Kunsthistorischen Institut in Florenz : 1964년부터 1973년에 걸쳐 간행된 11권의 도서관 소장목록중 제 2권은 부록으로 1870년 이후에 탄생한 이태리

예술가의 전시회카타로그 5,000종을 수록한 순수 전시회 카타로그 소장목록이다. 특히 르네상스와 휴머니즘에 관한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각광받고 있다.

특별히 전시회 카타로그만을 위해 도서관 전시회 카타로그 소장목록을 간행했던 도서관들은 근래에 와서 전시회 카타로그에 관한 정보도 도서관 자체 소장목록에 포함시켜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서 전시회 카타로그만을 수록한 소장목록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근래에 와서 미술관이나 갤러리, 박물관들은 그들의 소장 미술작품을 화상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여기에 전시회 카타로그를 포함한 도서관의 자료도 화상데이터베이스화하여 소위 멀티미디어카타로그<sup>59)</sup>나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소장 예술품만을 화상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국립미국미술관(National Museum of American Art)의 American Art Online<sup>60)</sup>이다. 또 워싱턴의 국립미술관(National Gallery of Art)은 박물관 소장 미술품의 화상데이터베이스인 Micro Gallery가 있다. 각 미술 전문도서관의 서지정보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전시회 카타로그를 검색할 수 있는 유명시스템으로는

- Watsonline : Metropolitan Museum of Art의 도서관시스템으로 아직까지 순수 서지정보만을 제공하고있으며 저자, 주제, Keyword, 서명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 SIRIS : 연방정부 산하기관인 Smithsonian Institution내 16개 박물관중의 하나인 허손미술관(Hirshhorn Museum and Sculpture Garden)의 Smithsonian Institution Research Information System이다.
- DIANA(Dusseldorf's institution art network application) : Dusseldorf박물관이 전세계 900군데의 자료교환 파트너를 통해 입수한 소장데이터베이스이며, 동시에 이 분야의 전문서지의 성격을 띄고 있다. 이 소장목록은 마이크로펄스 형태로 계간으로도 간행되며, 1990년 까지 약 125,000레코드가 입력되어 있으며 연간 12,000레코드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전시회 카타로그는 약 40%를 차지한다.
- 예술자료관 문헌서지검색정보 데이터베이스 : 문화예술진흥원의 자료실에서 그들의 서지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공개한 시스템으로서 자료 자체가 종합예술 관련

59) 김은영, "미술관 소장품 정보화를 위한 표준화의 맥락과 의미". **현대미술관연구**. 제 8집. 1997. p. 10

60) 유순남(1998), op. cit. p. 46

자료이므로 전시회 카타로그에 관한 정보는 많지 않다. 전시회 카타로그가 전체 자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현재 그들 자료의 서지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을 착수할 예정에 있다.

#### IV. 결론 및 제언

아직까지 우리나라 미술관련 미술전문도서관(박물관, 갤러리), 각 종합대학 단과대학인 미술대학의 도서관에 관한 연구가 미진하고 또한 이들 전문도서관끼리의 결집력의 부재속에서 특정 자료인 전시회 카타로그를 연구의 대상으로 정한 것은 첫째 이 자료 자체가 갖는 중요성이다. 두번째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계는 물론 특히 우리나라 미술대학 도서관이 미술전문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전시회 카타로그란 자료에 대한 그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다. 21세기 정보화시대는 문화시대와 맞물려 각 나라마다 문화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인 예술품을 국가 경쟁력의 대상으로 정하기도 한다. 컴퓨터 황제 빌 게이츠는 이미 유명 박물관 예술품의 사용권(저작권)을 사들이기 시작하여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이 각 박물관의 유명작품을 볼때마다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예술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더해져 간다. 그리하여 선진국들은 그들 예술품을 국가의 GNP척도로 삼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술작품의 최신 정보를 담고있는 전시회 카타로그가 도서관의 자료로서 정착되어지기 위한 첫 단계로서 이 자료를 이론과 실무 차원에서 다루었다.

전시회 카타로그는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의 리스트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전시된 작품에 관한 해석, 평, 작품의 스타일, 사진, 예술가의 인터뷰등 미술전문가나 비전문가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최신 정보원이다. 그 형태에 있어서는 5권짜리 단행본에서 부터 시작하여 팸플렛, 슬라이드, Phonodisc, 낱장을 여러번 접은 모양, 낱장의 leaflet, 포스트카드등 전시회와 관련하여 간행, 생산된 자료를 말한다.

전시회 카타로그의 기원은 “전시”행위에서 시작된다.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은 예술품을 시장에서 판매를 위해서 대중에게 알리는데서 출발하여 종교의식의 장식물이나, 전쟁 전리품의 과시등의 목적을 위한 국가 권력의 상징이나 개인적 부의 상징을 목적으로 사용했다. 중세 휴머니즘 시대에는 전시회는 학문의 대상으로 발전되었고, 현대적 의미의 전시회카타로그는 1648년 파리의 Academie des Peintures et des Sculpture에서 전시회의 안내서로서 시작됐다. 이태리, 스페인, 영국, 독일에서는 전시회 카타로그가 17세기 말부터 그들 각 나라의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여건에 맞게 발전하였다. 19세기부터 박물관은 넓은 시민층을 흡수하여 사회교육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작품에 대한 설명과 사진을 삽입하면서 오늘날 전시회카타로그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전시회 카타로그는 근대미술이 도입된 후 1912년부터 시작되었다.

전시회 카타로그가 미술 분야의 문헌에서 갖는 위치와 특성은 첫째 새로운 연구 결과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주는 매체이며, 둘째 현존하는 예술가나 사후 70년이 되지 않은 예술가의 작품의 사진을 전시회카타로그에 인쇄할 경우 이 사진은 저작권법의 예외규정을 적용받는 관계로 이용자는 다른 미술 전문 단행본 보다 빠르고, 쉽게, 저렴하게 미술작품의 사진을 접할 수 있다. 셋째 전시회 카타로그는 다른 자료에 비해 배포의 범위가 넓다. 넷째 전시회 카타로그는 보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예술사 연구에 있어서 유일한 도큐멘테이션이다. 다섯번째 전시회 카타로그는 예술품 보급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한다.

전시회 카타로그의 기능에 있어서 이 자료는 전시관람자에게 사회교육적 의미와, 또 전시회를 관람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시회를 대신하는 기능이 있다. 둘째 전시회 주최자는 전시회를 관광상품화 하여 경제적 효과를 얻게 해주고, 또한 국경을 초월하여 최신 학문 연구의 결과를 알리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세째 젊은 예술가들에게 전시회 카타로그는 사회에 예술가로써 첫 출발을 알리는 장이며, 네째 예술품은 전시회를 통하여 작품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전시회 카타로그의 내용에 있어서 특히 작품에 대한 해설과 평, 전문가들의 작품 묘사, 과거 작품과 비교하여 최신 작품의 학문적 연구 결과, 예술가 자신의 인터뷰, 작품의 사진등은 전시회 카타로그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전시회 카타로그의 실제 업무에서 구입은 다른 단행본과 비교하여 까다롭다. 먼저

전시회 카타로그에 관한 참고도구의 부족 현상은 이 자료 구입을 어렵게 한다. 전시회 카타로그의 구입에 도움이 되는 참고도구에는 전시회 칼렌더, 전문 학술지, 전시회 카타로그 판매목록, 전문서지, 전시회 카타로그 서지가 있다. 전시회 카타로그의 입수에는 일반 도서의 구입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입, 교환과 기증의 방법이 있으나 다른 자료에 비해 교환과 기증의 비중이 높다. 구입의 실제에서 전시회 카타로그는 전시회에 한정되어 배포·판매되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다. 국내 전시회 카타로그는 무료로 배포되지 않은 자료는 전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수집하거나 구매한다. 외국의 전시회 카타로그는 국제적인 자료교환망을 통하거나 Standing Order System을 이용한다.

전시회 카타로그의 정리에 있어서 이 자료의 배가는 도서관의 이용 환경에 따라 다음 두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다. 단행본 형태의 도록은 일반 도서와 함께 서가에 배열하여 개가제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팸플렛등 비도서자료형 전시회 카타로그는 파일 자료로 취급하여 폐가제로 운영한다. 두 번째는 참고도서만을 개가제로 운영하고 모든 전시회 카타로그를 그의 형태와는 관계없이 한군데서 같이 폐가제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다.

전시회 카타로그의 분류에 사용되는 분류표는 대부분의 미술전문도서관에서는 미국의회도서관 분류표를 사용하고, 그의 몇몇의 공공도서관에서는 DDC를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KDC를 사용한다.

편목에 있어서 도서관마다 편목의 범위에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행본 형태의 전시회도록만이 편목되어 일반 도서와 함께 개가제 시스템의 서가에 배열되고 나머지 비도서자료형 전시회 카타로그는 편목되지않고 파일자료로 취급되는 도서관이 있는가 하면, 모든 전시회카타로그가 형태와 상관없이 각각이 편목되고, 심지어는 전시회와 관련된 언론의 스크랩기사 까지도 편목되는 도서관도 있다. 편목의 실제에서는 기본표목의 선정에 있어서 예술가명, 전시회명, 전시기관 추천지명, 전시회 카타로그 명등 도서관마다 혼돈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시회 카타로그의 검색은 OCLC, RLIN, Museums Database System과 각 도서관에서 부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순수 전시회 카타로그 소장목록과 각 미술관 소속의 미술 전문도서관이 전시회 카타로그와 미술전문자료를 함께 수록한 서지데이터베이스

가 있다. 미래의 발전된 형태로는 전시회 카타로그를 포함한 미술전문자료 화상데이터베이스와 박물관 소장작품의 화상이미지를 함께 제작한 멀티미디어데이터베이스가 있다.

우리나라의 미술전문도서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의 도서관 자료실을 제외하고는 규모나 전문성에 있어서 매우 취약하다. 박물관이나 갤러리는 소수의 몇군데만이 자료실을 운영하고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미술 인구는 해마다 각 미술 단과대학에서 많이 양성되고 있다. 미술대학의 수만 해도 상업성 위주의 갤러리를 제외한 우리나라 박물관, 미술관의 수와 거의 비슷하다. 미술대학의 도서관은 미술 전문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술 전문도서관끼리의 협의체 하나 결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현황 조차도 파악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조사가 요구된다. 또한 미술 전문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술전문사서의 육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sup>61)</sup>

---

61) 민병화, 김혜진, “예술정보자료의 수집방안과 예술전문사서의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논총, 제4집, 1992 p. 92



##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1. 국립현대미술관, 1969-1996. **과천이전 10주년 기념 사료집**, 1996
2. 국어대사전. 이회승 편. **민중서림**, 198
3. 김남석. **非圖書資料 : 整理의 理論과 實際**. 대구.계명대학교. 1994.
4. 김달진. **바로보는 한국미술**. 서울. 발언. 1995.
5. 김은영." 미술관 소장품 정보화를 위한 표준화의 맥락과 의미". **현대미술관연구**. 제 8집. 1997. p. 9-34.
6. 미술문화정보센터 설립연구. **1995 미술의 해 조직위원회**. 한국정보관리학회. 1995.
7. 미술서적 합부로 출간 못한다. **조선일보**. 1998. 2. 5.
8. 민병화, 금혜진." 예술정보자료의 수집방안과 예술전문사서의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논총**. 1992. 제4집. p. 79-101
9. 박은자, 배순자, 최은주. **인문과학정보론**. 한국도서관협회. 1997.
10. 유순남." 미술관람정보". **미술관소식**. 국립현대미술관. 제 31호.3/4. 1998. p. 42-47
11. 유순남. **미술정보의 전자서비스 시스템 설계구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정보처리학과 석사논문. 1996
12. 이정민. **DDC 미술분야의 수정전개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논문. 1996.
13. 이현정. **미술자료의 이용에 관한 연구 : 이용자의 주제배경과 관련하여**.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논문. 1996.
14. 최선희 외, " 인터넷을 통한 회색문헌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연구". **제4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997. p. 55-58.
15. 송영희 외, **장서개발론**. 서울. 구미무역. 1992 (현대정보관리학회총서, 18)
16. 홍제현." 네트워크관계에서의 디지털복제와 공정사용법 적용의 문제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 31권.제 4호(1997). p. 139-164.
17. 황동열. **미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데이터요소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도서관학과 정보학과 박사논문. 1992.

(외국문헌)

1. Botzlar, Eva-Maria. Kataloge von Kustausstellungen als Publikationsformen und ihre Behandlung in Bibliothekswissenschaft. Philosophische Fakultät der Universität Köln. 1982.
2.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1. New York. Dekker 1968
3. Fitzpatrick, Olivia, "Art exhibition catalogues; a resource for ar documentation". An Leabharlann. The Irish Library. 1996. Vol.12.Nr.4. 117-120.
4. Fromm, Fr. Karl und W. Nordmann. Urheberrecht, Kommentar. . 4. Aufl. Stuttgart. 1979.
5. Houghton, Beth and Gillan Varley." A Local approach to national collecting. A UK feasibility study for the cooperative collection of exhibition catalogues". Art Libraries Journal.1989. 14/1. p. 38-43
6. Jackson, Lotta." Art exhibition catalogues. The third european conference of the IFLA. Section of Art Libraries, Florence, 2-5 Nov. 1988". International Cataloging & Bibliographic Control 7/8 1989. 46-47.
7. Koch, Gr. Fr. Die Ausstellungen, ihre Geschichte von den Anfängen bis zum Ausgang des 18. Jahrhunderts. Berlin. 1967.
8. Kullik, Andrea. Ausstellungskataloge als kunsthistorische Publikationsformen(1945-1990). Hausarbeit Fachhochschule für Bibliotheks- und Dokumentationswesen, Köln. 1993.
9. Leger, Danielle." Le Centre d'information artexte Mediation du catalogue d'exposition et de la Francophonie". Art Libraries Journal. 1996. 21/3. 34-43
10. Lersch, Thomas." Graue, teuer Freund, ist alle Theorie". BFB. 17(1989)3. p. 340-350
11. Neuheuser, Hans Peter. "Ausstellungskataloge als spezispische Publikationsform"

Bibliothek. Forschung und Praxis. 12(3). 1988. p. 241-262.

12. Richmond, Neal W. "Introduction". *The World Art Catalogue Bulletin*. 1(Fall 1963).2
13. Rucker, Elisabeth." Beschaffung und Verzeichnung von Ausstellungskatalogen". *ASpB Bericht über die 16. Tagungen in Ausburg. 1-4 März 1977*. Berlin. p. 199-207
14. Starr, Daniel." Some comments on the cataloging of exhibition catalogues, or who was the author of that exhibition". *Art Documentation* (1966). Vol. 15. Nr. 1 p. 11-16
15. Taylor, Joyes Geneva. *Art exhibition catalog; an exploratory study of their accessibility to patrons in selected academic, museums and art school libraries*.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1993

## A Study on the art exhibition catalog : its value as an art historical document and use in the library

Moon-ja Ro \*

### 〈Abstract〉

For many years art libraries have been concerned about the problem resulting from the addition of exhibition catalogs to general art collection. Those who work or research in the art field agree that exhibition catalogs are great value, and in many cases, the essays and documentary material contained in these catalogs may be the only source of information on particular artists. This paper contains two purposes. One is to settle the exhibition catalog as a specific form of publication in the library. In theoretical aspect, this material is handled in definition, form, historical development and the position and specification. Another is to manage exhibition catalog in the library. In practical aspect, this material is handled in acquisition, classification, cataloging and use.

---

\* Professor,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ong-Eui Women's University